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1)

- 주체경어법을 중심으로 -

徐 德 鉉 (서울대 강사)

목	차
1. 머리말	
1.1 본연구의 개관	
1.2 본연구의 한계점	
2. 주체경어법의 기술	
3. 본연구에서 남은 문제	

1. 머리말

1.1. 본연구의 개관

필자는 줄고(1992.8)에서 과거 검인정 및 국정 문법 교과서의 경어법 기술에 대하여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대안(代案)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경어(법) 사용 기능의 신장을 위한 학교문법의 경어법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학교문법서가 대부분 경어법의 분류기준을 의미에 두었고, 발화어휘(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구별이 없이 성인어(成人語)에 초점을 맞추어 경어법을 기술하였으며, 형태를 위주로 그것을 기술함으로써 문 이상의 경어법 호응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 밖에도 학교문법서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필자는 그러한 제반 문제들을 가능한 한 풀어 국어교육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작으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어법 기술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었다.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의 부족이나 그와 관련된 주변 학문의 도움의 한계 등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경어법 기술이 나와야 하겠다.

대우대상으로 분류된 경어법 체계는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그리고 상대경어법 등이다. 그 밖에 경어법의 특수어휘가 별도로 있다.²⁾ 본고는 그들 중에서 우선 주체경어법만 기술하고자 한다.

주체경어법은 먼저 발화어휘의 경어³⁾(敬語)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그 이해어휘의 경어³⁾는 피교육자의 경험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와 구분해서 기술될 것이다.

인성(人性)체언이 주체로서 직접 대우되는 경우 외에도 소유주나 경험주 등으로서 주체가 되어 간접적으로 대우되는 경우⁴⁾, 주체경어법이 관여하는 서술어의 품사(동사, 형용사, 조사 등)⁵⁾ 서술어에 용언이 연속될 경우의 주체경어법⁶⁾, 인용법에서의 경어법의 조정⁷⁾, 호응관계 등이 대체로 기술될 것이다. 그 밖에 압존(법)이 이해어휘의 경어와 함께 기술될 것이다.

그런데 경어법 기술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경어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화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은 본고에서 제외한다.⁸⁾

1) 줄고(1992)의 3장 참조.

2) 상계서, pp.4-6.

3) 상계서, pp.234-237.

4) 김완진 외(1979), p.147. 이용백 외(1979), pp.32-33, p.55. 통일문법 국정(1985), pp.102-104. 참조.

5) 정인승(1956b), 김윤경(1957), 양주동(1966), 이원구 외(1966), 이은정 외(1967), 허용(1968), 정인승(1968), 강윤희(1968), 허용(1979) 등 참조.

6) 줄고(1986) 참조.

7) 이용백, 전계서, pp.136-139. 참조.

8) 줄고(1992년), p.4, 註. 6. 참조. 통일문법 국정(1985), p.103. 참조.

앞에서 언급했지만 경어법 기술을 위해서 사회언어학(社會言語學)의 발전이 국어학계에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경어법과 관련된 연구물에 제시된 사회적 요인을 아쉬운 대로 학교문법에 원용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연령, 친소, 격식(장소), 지위(계급), 향렬, 인격⁹⁾, 힘¹⁰⁾, 성별, 비품¹¹⁾ 등

이들 요인 중 피교육자인 청소년들 사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서 ‘연령’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친소’, ‘격식’, ‘지위’, ‘향렬’,

가령 다음의 두 예문을 보기로 하자.

(가) 선생님은 데에서 버스 정류장이 멀어서 불편하시겠어요.

(나) 선생님은 데에서 버스 정류장이 머서서 불편하시겠어요.

(가)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직접 주어로 하는 서술어 ‘멀다’에 ‘-(으)시-’가 쓰이지 않았는데, (나)에서는 그것이 쓰였다.

‘버스 정류장’은 본고 2.2.5의 10에서 살펴 본 것처럼 주체의 신체부분이나 경험물이 되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으)시-’를 쓴 것은, 버스 정류장이 멀다는 사실을 특별히 선생님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와 같이 ‘-(으)시-’를 쓰지 않거나 (나)와 같이 쓰는 것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화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9) 남기심(1981), p.10. 참조, 사회적 요인도 차츰 변화되어 형식적인 요인 [연령, 지위, ……………]에서보다 인간적인(내용적인) 요인[인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10) 양인석(1980), p.105. 조준학(1981), p.25. 참조.

11) 이런 것은 개별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사회적인 범주를 이루기에 미약한 요인이다. 註.8) 참조. 가령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김영식 씨 왜 오늘 늦으셨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자. 감정적인 비품에 의해 그런 발화(문)가 나온 것으로 이탈(deviation)이나 전의(switching)로 볼 수 있다.

‘성별’ 등이 비교적 그들의 공통적인 인식의 집합인 사회적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나, 이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소(親疎)’는 청소년층에서 경어법 사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나, 그래도 그 일부가 그것을 의식하여 경어를 쓰고 있다. 이 요인은 주체 경어법과는 별로 관련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동년배에게는 ‘친소’가 매개변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 사실 이 요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가령 학급회의나 조회 시간에 비교적 그 힘을 발휘할 뿐, 대부분 공적이나 사적인 장소에서 그 각각에 어울리는 경어가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격식’과 관련된 경어법 지도가 있어야 한다.

‘항렬’의 요인은 사실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적어도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의식 속에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代數)의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작 4촌 이내의 친족만이 대체로 그들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나 소위 압존(법)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항렬’보다 ‘연령’이 지배적인 세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성별’은 ‘친소’처럼 동년배에게 역시 매개변수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요인도 주체경어법과 거의 연관이 없다.

‘지위(계급)’는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상·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요인으로서 상·하급생 내지 선생님과의 위계를 경어(법)로서 표현하는 데 작용한다. 그런데 청소년 사회에서 그것이 주체경어법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령’의 요인에 의해서는 주체가 존대될 경우가 아니라도 상급생이거나 선배니까 주체존대의 어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다.」

12) 줄고(1985), 김혜숙(1986) 참조.

13) 동아일보(1992년 10월 9일) 참조.

14) 줄고, 상계서, p.59. 참조. 가령 상급생과 ‘연령’의 낙차(落差)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선배를 깎듯이 대우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형(님)이 가시겠어요?”

따라서 피교육자인 청소년들이 주체경어법에 관여하는 사회적 요인은 대체로 '연령', '격식(장소)', '지위(계급)' 등에 불과하다.

'연령'은 그 낙차(落差)가 클수록 주체경어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산물이기에 앞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장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체경어법은 주로 이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화가 보편화되고 의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하지만, 기성세대처럼 아직은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연령'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주체의 연령이 청소년들의 그것과 낙차(落差)가 크지 않은 경우에 주체존대의 어형을 대체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친족인 경우에 그러한 예외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⁵⁾

이상으로 주체경어법과 관련된 사회적요인을 대강 살펴 보았다. 그래서 주체경어법에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 선택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언어요소들에 대하여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주어의 조사와 서술어의 용언¹⁶⁾이다. 후자는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화자(話者)는 누구도 될 수가 있겠지만, 화자의 언어발달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자는 어느 일정한 단계의 피교육자로 한정을 해야 일관성 있는 경어(법) 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내용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본론의 기술에서 주체경어법의 언어요소에 선택되어 이용될 경어자료는 1980년대의 청소년들의 어휘이다.¹⁷⁾ 이것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 15) 상계서, pp.151-152. 어머니나 동일 항렬의 친족인 경우에 '연령'과 무관하게 주체존대의 어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머니에게 오늘날 청소년들은 반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동서(p.19, p.39)에 서울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체경어법에서 70% 이상이 '-께서'를 사용하지 않고, 43% 이상이 '-(으)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16) 여기에서는 서술어의 소위 '서술격 조사'도 용언에 포함시킨다.
- 17) 이용주(1991), p.12. 특히 실용을 위한 문법 기술의 경우, 그 시기를 한정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범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화(표현) 어휘

주체경어법

○ 조사

-께서

○ 용언 어간

동사 어간 : 잡수시-, 주무시-, 돌아가시-

형용사 어간 : 계시-

○ 용언 어미

-(으)시-

※ 호응

이해 어휘

주체경어법

○ 조사

*(-께옵서-)

○ 용언 어간

동사 어간 : 자시-/들-(먹-), 별세-/작고하-(죽-), 왕립하-(찾아오-), 분부하-(이르-), *행차하-(길을 가-)

형용사 어간 : 편찮-(알-)

○ 용언 어미

*(-옵시-/시옵-)

※ 압존

본고의 경어법 기술에서 피교육자를 청소년으로 정하였으므로 다음에는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대우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겠지만 대우법 체계의 변화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8) 이 어휘 자료는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 화자인 청소년들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사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이해 어휘로 나뉜다.

19) 오늘날 청소년들의 대우 대상을 들면 다음과 같다.

주체경어법에서 대우의 대상으로서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본문에서 제시될 것이다.

어떤 언어형식의 기능 내지 용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피교육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언어교육으로서 국어교육이 맡은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어의 사용과 관련된 언어지식을 기술하는 것은 그것을 교수함으로써 피교육자에게 경어법을 있는 그대로 언어발달단계에 맞게 광범위하고 충분한 경험을 하게 하고 경어 사용의 준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기술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에 1·2에서 제시된 한계 안에서 주체경어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런대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1.2. 본 연구의 한계점

국어교육학의 성격상으로 볼 때에 인접학문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것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 중 언어지식에 해당하는 학교문법의 기술은 국어학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특히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은 국어학 이외에도 사회언어학의 연구성과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한국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외국 학문의 소개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체계성도 없이 부분적인 것을 다루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은 이제 문(文)을 기본 단위로 하고 담화 차원에서 기술되어야 하나, 아직은 큰 벽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언어 외적인 면에 초점을 둔 화용론이나 담화 내지 텍스트 이론 등이 역시 국어학계에 소

① 친족: 할아버지·할머니, 큰아버지·큰어머니, 아버지·어머니, 삼촌, 고모, 형·사촌형, 오빠·사촌오빠, 형수·올케, 누나·사촌누나, 언니·사촌언니, 동생·사촌동생

② 비친족: 노인, 선생님, 성인(남·녀), 선배·상급생, 남자또래·여자또래, 하급생, 어린이, *에인, 성인들(公衆), 청소년들(公衆), 어린이들(公衆), 하느님

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국어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으로서 언어 영역을 말하기 및 쓰기와 통합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인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²⁰⁾

그러나 언어지식인 경어법의 기술을 표현의 기능인 말하기 및 쓰기에 접목한다는 것은 국어교육학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재구성에서 그 원리로서 교수 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면, 국어교육학의 연원이 일천한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마당에 선부르게 경어법 기술의 확대를 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²¹⁾

이상과 같이 외적으로 주변 학문이나 내적으로 국어교육학 자체의 발전의 한계 때문에 경어법의 호응관계가 통사론을 중심으로 한 문(文)의 층위에서 부족하지만 사회언어학적 연구성과의 도움을 받아 기술될 수밖에 없다.

본론에서 주체경어법 기술에 쓰인 예문 중에는 기존 문법서들에서 이미 예시된, 기술상 좋은 문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 둔다.

20) 줄고(1992), pp.240-241. 참조. 필자는 종래의 학교문법서의 구성면에서 국어교육의 내용상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용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1) 이론적인 지식은 실제 연습의 과정에 제시되어 의식적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훈련 결과의 지속성이나 전이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교수의 도구인 교재의 구성에 교수 방식이 반영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론에 의한 교수 방식이 가장 교수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은 그 동안 국어교육학에서 이론적인 연구가 미흡(?) 하였기에 그 체계를 운위할 계체는 아니지만, 언어관에 입각하여 보면 서양에서는 소위 이성주의(rationalism)와 경험주의(empiricism)의 두 이론이 대립을 이루면서 교육적인 방법에 원용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도 가령 경험주의의 방법 중 하나인 문형연습(pattern drill)이 시도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효과는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다.

최근 심리학 쪽에서 인지심리학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문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에서 관심의 대상은 되지만, 그 이론은 쉽사리 원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2. 주체경어법의 기술

2.1. 정어법

우리말(한국어)에는 대우를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상황의 사회적 요인인 연령이나 친소 혹은 지위나 격식 등에 의해 대우에 관계된 의미를 갖는 언어 형식 곧 경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용법을 경어법이라고 한다.

주어의 주격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간이나 어미 혹은 서술격 조사의 어미에 경어를 사용하여 주체를 대우하는 것을 주체경어법이라 하고, 부사어의 부사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간에 경어를 사용하여 객체를 대우하는 것을 객체경어법이라 하고, 독립어의 호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 어미에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대우하는 것을 상대경어법이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말(한국어)에는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상대경어법 등의 각 체계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문(文)의 호응을 이룰 수 있는 경어들이 있다.

2.2. 주체경어법

2.2.1. 청소년으로서 말하는 사람인 우리는 대우의 대상이 주체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가) 아버지, 할아버지(님)께서 지금 오십니다.

22) ‘아버님’, ‘어머님’ 등이 어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표준어로 삼지 않으려는 주장이 있다. 국어심의회가 확정한 ‘표준화법’에 따르면 친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 등 ‘님’자를 붙이는 것은 틀린 어법이라는 것이다.(중앙일보, 92년 10월 22일 참조) 그렇다면 ‘할아버님’, ‘할머님’, ‘아주머님’, ‘누님’ 등도 그와 동격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버님’, ‘어머님’ 등이거나 ‘할아버님’를 각듯이 대우할 때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등을 자연스럽게 언중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어법

(나)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문(文)의 주어는 1-(가)와 같이 말하는 사람도 말 듣는 사람도 아닌 제삼자일 경우와 1-(나)와 같이 말 듣는 사람이 동시에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사람도 문(文)의 주어가 되기는 하지만 높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가), (나)에서 주체인 '할아버지', '선생님'을 대우하기 위하여 주어에 주격 조사 '-가/-이'의 경어, '-께서'와 서술어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쓰였다.

2.2.2. 우리보다 '연령'이 많은 문(文)의 주체가 대우를 받는다.

2. (가) 할머니(님)께서 지금 가십니다.

(나) ① 어머니(님)께서 거기에 가시나요(가세요)?

② 어머니가 거기에 가시나요(가세요)?

(다) ① 고모(님)께서 여기에 오셨군요.

② 고모가 여기에 오셨군요.

(라) ① 아저씨께서 저기에 가셨었어요?

② 아저씨가 저기에 가셨었어요?

(마) 형(님)이 여기에 오셨군요.

(바) 언니가 여기에 오셨군요.

2-(가), (나), (다), (라), (마), (바)와 같이 주체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아저씨(성인)', '형', '언니' 등인 경우에 '-께서'와 '-(으)시-' 혹은 '-(으)시-'가 쓰였다.

우리와 주체 사이에 '연령'의 낙차(落差)가 클수록 주체경어법은 비교적 안정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작을 때에 불안정하여 주체를 대우하는 경어가 쓰이지 않는 경향이다.

3-(가), (나), (다) 등과 같이 주체가 친족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두드

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표준화법을 정하는 것이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려진다.

3. (가) 고모가 여기에 왔군요.
 (나) 형이 여기에 왔군요.
 (다) 언니가 여기에 왔군요.

특히 주체가 어머니인 경우에 '연령'이 대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4. 엄마가 거기에 가?

그러나 4와 같은 문(文)은 전통어법에서 지나치게 벗어남으로 분별 없이 써서는 안된다.

5. (가)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회원께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 (나) 과학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명하셨습니다.

5-(가), (나)와 같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격식'을 갖춘 문(文)이 사용된다. 사석(私席)에서라면 그 주체들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5-(가)의 주체는 개인이고, 4-(나)의 주체는 공중(公衆)이다. 주체가 우리의 동료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주체를 대우하는 '-께서'와 '-(으)시-'가 쓰였다.

6. (가) 선배님께서 거기에 가시겠어요?
 (나) 형(님)이 그것을 하시겠어요?

6-(가), (나)의 주체는 지위(계급)가 우리보다 높은 상급생이다. 그 주체들이 연령이 우리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연령이 우리보다 적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께서'와 '-(으)시-' 혹은 '-

(으)시-'가 쓰일 수 있다. 그것은 주체가 우리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2.2.3. 문(文)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출현할 수 있는 서술어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 7. (가) 그 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 (나) 저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무척 예쁘셨다.
- (다) 아버지(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밤이 늦도록 일을 하신다.

7-(가)는 서술격 조사 뒤에 '-(으)시-'가 나타나고, 7-(나)는 형용사 어간 뒤에 그리고 7-(다)는 동사의 어간 뒤에 그것이 각각 나타났다.

2.2.4. 한 주어에 서술어가 연속될 경우에 서술어 어간 뒤에 '-(으)시-'를 첨가하여 주체를 대우하는 데는 일정한 어법이 있다.

- 8. (가) 큰아버지도 그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 (나) 큰아버지도 그 일을 마치고 가셨다.

8과 같이 서술어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으)시-'가 쓰이되, 8-(나)와 같이 적어도 뒤의 서술어 어간에만은 첨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서술어 어간에만 그것이 첨가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8-(가)와 같이 모든 서술어에 '-(으)시-'가 쓰이면, 주체에 대한 대우의 정도가 짙고 깎듯하게 된다.

- 9-(가) 할머니(님)께서 오셔서 기다리시다 가셨어요.
- (나) 할머니(님)께서 오셔서 기다리다 가셨어요.
- (다) 할머니(님)께서 와서 기다리다 가셨어요.

9와 같이 서술어가 세 개 있는 경우에 '-(으)시-'가 쓰이되, 9-(다)와 같이 맨 뒤의 서술어 어간에만 첨가되면 주체에 대해 인색한 대우를 나타냄

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²³ 9-(가)와 같이 세 개의 서술어 어간에 ‘-(으)시-’를 첨가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지나치다 싶으면, 9-(나)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맨 앞과 뒤의 서술어 어간에 첨가해도 충분히 주체를 대우하게 되고 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2.2.5. 인성(人性)체언이 존칭화된 체언으로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존칭체언인 주체를 대우하기 위하여 서술어 어간에 ‘-(으)시-’가 첨가되는데, 때로 존칭체언이 직접 주어로 쓰이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되는 것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인 존칭체언을 대우할 경우에도 쓰인다.²⁴

10. (가) 그 분은 아직도 귀가 밝으시다.

23) 줄고(1986), p.104. 참조. 한 문(文)에 용언이 3개 있는 경우, 표준어권(서울과 발안)의 청소년들이 “할머니가 와서 기다리다 갔다.”라는 발화문의 주체인 ‘할머니’에게 사용한 서술어의 선어말어미 ‘-(으)시-’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서울) “할머니가 오셔서 기다리시다가 가셨어요.”
 “할머니가 오셔서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성별	어형	문항번호	시-시-시	시- 시 -시	시 - 시 -시	시 - 시 - 시	대표항목문
남		16	53.2%	33.3%	7.8%	4.3%	①
여		16	58.6%	29.1%	6.3%	3.4%	①

(발안) “할머니께서 오셔서 기다리시다가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오셔서 기다리다가 가셨어요.”

성별	어형	문항번호	시-시-시	시- 시 -시	시 - 시 -시	시 - 시 - 시	대표항목문
남		16	50.6%	29.7%	8.4%	5.7%	①
여		16	59.0%	27.6%	7.5%	5.2%	①

24) 줄고(1986), pp.104-106. 김완진 외(1979), p.147. 이용백 외(1979), p.55. 통일문법 국정(1985), pp.102-104. 참조.

(나) 선생님은 감기가 드셨다.

(다) 할머니(님)께서는 지금도 고향의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10-(가), (나), (다)에서 주어로 쓰인 '귀', '감기', '교회당 종소리' 등은 인성(人性)체언이 아니다. '-(으)시-'에 의해서 대우된 체언은 이들이 아니고, 신체의 부분인 '귀'의 소유주며 또 '감기', '교회당 종소리' 등의 경험주이다. 예문들에서 서술어의 용법을 잘 살펴보면 '뵈다', '들다', '들리다' 등은 직접 주어인 '귀', '감기', '교회당 종소리'와 관련이 되어 있으나, '-(으)시-'는 전체 문(文)의 주어인 주체에 걸려 있는 것이다.

2.2.6.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 '-(으)시-'로 주체를 대우하는 경우 밖에도 다음과 같이 주체를 대우하는 서술어의 용언이 있다.

11. (가) 아버지(님)께서 지금 주무신다.

(나) 선생님께서 지금 진지를 잡수신다.

(다) 할아버지(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

(라) 오늘은 어머님(님)께서 집에 계십니다.

11-(가), (나), (다)의 용언은 차례로 '자다', '먹다', '죽다'의 경어로서 동사고, 11-(라)의 용언은 '있다'의 경어로서 형용사다.

2.2.7. 인용법²⁵⁾에서 주체경어법의 조정이 일어난다.,

12. (가) 아버지가(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 아버지가(께서) 당신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2-(가)는 직접 인용문이 들어 있고, 12-(나)는 간접 인용문이 들어 있

25) 이용백 외(1979), p.136. 참조. 말하는 이가 자기의 이야기 안에 남의 말이나 글을 옮겨와서 말하는 방법을 인용법(引用法)이라고 부른다.

다. 12의 밑줄 친 말들은 ‘-(으)시-’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달라진 예다. 12의 문(文)은 ‘아버지’에 관한 일이므로 간접 인용에서 ‘-(으)시-’가 새로이 첨가된 것이다.

13. (가) 철수가 나에게 “벌써 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나) 철수가 나에게 벌써 보았느냐고 물었다.

13-(가)는 직접 인용문이 들어 있고, 13-(나)는 간접 인용문이 들어 있다. 13의 밑줄 친 말들도 ‘-(으)시-’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달라진 예다. 13의 문(文)은 말하는 사람 자신에 관한 일이므로 직접 인용의 ‘-(으)시-’가 간접 인용에서 소거된 것이다.

따라서 12와 13의 인용문에서 주체경어법의 조정이 행해진 것이다.■

2.2.8. 문(文)에서 주체경어법이 관여하는 언어 요소는 주어의 조사, 서술어의 어간이나 어미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서로 호응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요새는 그 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다.

14. (가) 할아버지(님)께서 서울에 가신다.
 (나) 선생님께서는 때에 계시다.
 (다) 고모님께서 여기에 오셨군요.
 (라) 고모가 병원에 가셨군요.
 (마) 형(님)이 여기에 오셨군요.
 (바) 언니가 거기에 가셨군요.
 (사) 형이 여기에 왔군요.
 (아) 언니가 거기에 갔군요.

14-(가), (다)는 주격 조사 ‘-이/-가’의 경어 ‘-께서’와 서술어의 어미 ‘-(으)시-’가 호응을 이룬다. 그러나 14-(라)와 같이 고모가 우리보다 ‘항렬’이 위지만 ‘연령’의 낙차(落差)가 크지 않거나 14-(마), (바)와 같이

‘연령’의 낙차(落差)가 커도 형제 사이의 경우에는 대체로 주격 조사에 ‘-께서’가 사용되지 않아 서술어의 어미 ‘-(으)시-’와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14-(사), (아)는 주체인 ‘형’, ‘언니’와 우리 사이의 연령의 낙차(落差)가 작으므로 주체를 대우하기 위한 경어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손윗 존대에는 주어의 주격조사 ‘-께서’와 서술어의 어미 ‘-(으)시-’의 호응 관계가 문란하여 지고 있다. 14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어의 ‘-(으)시-’보다 주어의 ‘-께서’가 불안정하다.”

그런데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문(文)은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5의 예문과 같이 격식성 때문에 비교적 ‘-께서’와 ‘-(으)시-’가 엄격하게 호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4-(나)와 같이 주어의 ‘-께서’와 서술어의 용언 어간 ‘-계시-’가 호응을 이룬다. 이런 관계는 11-(가), (나), (다)에서도 대체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주체를 대우하는 용언의 어간은 14-(가), (나)와 같이 그와 우리 사이의 ‘연령’의 낙차(落差)가 아주 큰 경우에 쓰이기 때문이다.

2.2.9.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청소년 사회에서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주체경어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밖에 성인(成人) 사회에서 사용하는 주체경어법도 최소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주체경어법도 언어 요소로서 주어의 주격 조사, 서술어의 용언의 어간과 어미 등에 관여한다.

주어의 주격 조사 ‘-께서’는 문어(文語)에서 자주 쓰인다. 이것은 ‘-께서’보다 더 깎듯한 대우로 사용된다.

서술어의 용언 어간으로 동사 어간은 ‘자시-/들’(떡-), ‘별세하-/작고하’(죽-), ‘왕림하’(찾아 오-), ‘분부하’(이르-), ‘행차하’(길을 가-) 등이 있다. 형용사 어간은 ‘편찮-’(않-)가 있다.

서술어의 용언 어미로 ‘-옵시-/시옵’은 문어(文語)에서 흔히 쓰인다.

27) 줄고(1985), pp.17-26, pp.37-48, pp.151-152. 참조.

28) 동사인 ‘않-’의 완곡한 표현으로 ‘편하지 아니하-’를 손윗 사람에게 쓰게 된 것이 관습화되어서 경어가 된 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뀐 것이다.

이들은 ‘-(으)시-’ 보다 더 극진한 대우로 사용된다.

2.2.5의 존칭체언이 2.2.5에서 제시한 것 밖에 직접 주어로 쓰이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되는 것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인 존칭체언을 대우할 경우에 서술어 어간에 ‘-(으)시-’가 첨가된다.²⁹⁾

15. (가) 아버지는 자동차가 없으십니다.

(나) 할아버지(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데.

(다) 어머니(님)께서는 그 돈이 있으십니다

15-(가), (나), (다)와 같이 성인(成人)들은 직접 주어인 사물, ‘자동차’, ‘생각’, ‘돈’ 등이 신체의 부분은 아니지만 주체의 개인적인 소유물일 때에 서술어의 어간에 ‘-(으)시-’를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6. (가) 세종 대왕은 훌륭한 임금님이셨다.

(나) 세종 대왕은 훌륭한 임금님이다.

16-(가)와 같이 구어(口語)에서는 개별적인 관계로 파악하면 서술어 어간에 ‘-(으)시-’를 첨가하여 써야 하는 주체에 대하여 16-(나)와 같이 문어(文語)에서 역사상 훌륭한 임금님의 전체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사교과서나 방송국의 해설 같은 데서 16-(나)처럼 쓰일 수 있다.³⁰⁾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 손윗사람이어서 대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일지라도 말 듣는 사람이 주체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으)시-’가 쓰이지 않는다.³¹⁾

17. 할아버지(님), 아버지가 지금 왔어요.

29) 줄고(1986), pp.104-105. 참조.

30) 통일문법 국정(1985), p.102. 참조.

31) 상계서, p.102.

‘아버지’가 말하는 사람에게는 ‘-(으)시-’를 붙여 대우해야 할 인물이지만, 말 듣는 사람인 ‘할아버지’에게는 손아랫사람이기 때문에 17과 같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요새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8. 할아버지(님), 아버지(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말하는 사람인 우리는 손윗사람인 ‘할아버지’에게 손아랫사람인 ‘아버지’를 낮추지 않고 18과 같이 대우한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부모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경어법에서 압존(壓尊)에 관한 전통적인 어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32) 줄고(1985), p.20, p.40.

33)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압존의식의 잔재를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여지는 있다. 가령 줄고(1985), pp.47-49를 참조하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약간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통계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 당신보다 연령 차가 큰 언니에게 말할 때
“언니가 여기에 오셨군요(왔군요).”

지역	어형	문항 번호	-(으)시-	- ㅅ -	기 타	대 표 항 목 문
서 울		69	54.9%	43.4%		③ 34.6% ④ 30.4%
발 안		69	54.8%	43.4%		③ 39.9% ④ 28.4%

서울과 발안 여자 청소년들의 ‘-(으)시-’에 대한 사용 백분율이 서로 비슷하다. 그리고 그것이 ‘-ㅅ-’에 대한 사용 백분율보다 조금 더 크다.

13) 당신보다 연령 차가 큰 언니를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 언니가 왔어요.”

어형	문항	-(으)시-	- ㅅ -	기 타	대 표
----	----	--------	-------	-----	-----

3. 본연구에서 남은 문제

국어교육학이 독자성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간학문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이 분야를 응용언어학이라고 불려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이론 체계를 세우는 일이 다른 순수학문의 그것보다 쉽지 않은 까닭이 또한 그러하다. 주변의 여러 학문, 언어학을 비롯하여 심리학, 교육학, 그 밖의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문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어교육학의 독창적인 이론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이 이 학문, 저 학문을 응용하여 짜 맞추려는 식으로 국어교육학을 연구하려는 태도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만큼 국어교육학이 인접 학문의 발전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교육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어교육학의 정의(定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런 정의(定義)에 입각한 교수가

지역	번호				항 목 문
서울	19	27.8%	70.8%		㉞ 18.1% ㉟ 59.9%
발안	19	32.1%	68.3%		㉞ 22.4% ㉟ 54.5%

서울과 발안 여자 청소년들의 ‘-ㅅ’에 대한 사용 백분율이 서로 비슷하다. 그리고 그것이 ‘-(으)시-’에 대한 사용 백분율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11)과 13)의 각 어형에 대한 사용 백분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버지’ 앞에서 주체인 ‘언니’를 낮추기 위하여 표준어권의 여자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으)시-’ 보다는 ‘-ㅅ’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압존 의식이 핵가족화에 따라 쇠퇴는 되었다고 하여도 핵가족 내에서 그것이 미미하나마 아직도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권의 여자 청소년들은 정어법의 변화에 남자 청소년들보다 비교적 민감한 편이면서도 그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전통어법에 충실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론으로 교수방법이 개발되어야, 피교육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경어법의 기술이 단지 언어지식으로만 전락하여 사장되지 않고, 그 교수방법에 따른 말하기 및 쓰기의 연습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국어교육과정에 맞춘 것이 아닌, 실제와 접목된 경어법 기술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언어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어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³⁴⁾ 가령 한국어 경어법에 대한 어휘 연구는 줄고(1992)에서 청소년들의 그것만 밝혀졌을 뿐이다. 성인(成人)이나 유년기의 각 경어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역시 위와 아래가 연계된 경어법 기술이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직 그 시기로 보아 무리 같지만, 언어 외적인 면의 연구가 국어학계에서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큰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 언어의 내적인 면의 연구의 도움으로는 어차피 국어교육학이 발전의 한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언어가 기호 체계로서 국어교육학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그것이 상황 속에서 갖게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어교육학은 피교육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제시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면 국어문법, 경어법이 피교육자들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4) 그 동안 국어교육적 차원에서 어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것도 주로 문자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작이다.

참 고 문 헌

- 강운호(1968), 문법, 지림출판사
- 김완진·이병근(1979), 문법, 박영사
- 김윤경(1957), 고등 나라 말본, 동아출판사
- 김혜숙(1986), 「현대국어의 대우법 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남기심(1981), “국어 존대법의 기능”, 『인문과학』 45집, 연세대학교
- 서덕현(1985), 「현대 한국어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6), “청소년의 대인 관계에 관한 호칭 사용 실태 및 주체 대우 어형 ‘-(으)시-’의 몇몇 사용 실태”, 『국어교육』 55·56, 한국 국어 교육 연구회
- _____ (1992),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이용주(1991), “한국어 대우법과 그 교육(1)”, 『선청어문』 1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용백·안병희(1979), 문법, 보진재
- 이은정·한인석(1967), 중학 표준 문법, 지림출판사
- 이원주·이은문(1967), 표준 중학 문법, 수학사
- 양인석(1980), “한국어 말끝말씨의 간소화”, 『언어와 언어학』 6집, 한국 외국어대학교, 어학연구소
- 양주동·유목상(1966), 새 중학 문법, 일조각
- 정인승(1956), 표준 고등 말본, 신구문화사
- _____ (1968), 표준 문법, 계몽사
- 조준학 외(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공동계획
- 허 용(1968), 표준 문법, 신구문화사
- _____ (1979), 문법, 과학사
- 통일문법 국정(1985), 문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 동아일보(1992. 10. 9)
- 중앙일보(1992. 10. 22)
- 그 외 多數의 文獻